



연세대의 산업보건 국제 심포지움 개최

연세대학교 산업보건연구소(소장 노재훈)는 8월 25일(목)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직업성 호흡기 질환의 최신 지견」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움 개최와 함께 전 산업보건연구소장이었던 문영한 박사(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연구원장)의 정년퇴임 기념식을 가졌다.

한편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직업성 호흡기 질환의 분자 생물학적 진단(Prof. Glenn Talaska, Univ.

of Cincinnati, U.S.A), 직업성 호흡기 질환의 세포 병리학적 고찰(Prof. Kazuo Takemoto, Univ. of Saltama, Japan), 직업성 호흡기 질환의 방사선학적 최신 지견(Dr. Hisao Shida, Rosai Hospital for Silicosis, Japan), 우리나라 산업보건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문영한 박사, 공단 산업보건연구원장)에 대한 연제로 강연이 있었다.

협회 오도석 부장, 김석원 실장 박사학위 취득

당 협회 오도석부장(본부 산업위생부)과 김석원 실장(본부 중앙분석실)이 박사학위를 취득.

오도석부장은 「역상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Arylmethyl hadides의 머무름 메카니즘 및 정량에 관한 연구」를 논제로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김석원실장은 「크롬 정량을 위한 용매추출에 관한 연구」를 논제로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각각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

중국 산업보건 학자단 내한

당협회와 중국정부 산업보건기관들과의 한·중 국제학술교류사업이 지난 '94. 5. 22~6. 3(13일간) 한국 측 전문가 3명이 중국에 파견되어 중국 북경, 상해, 심양 등 중국정부 노동위생기관을 비롯하여 사업장의 노동위생실태를 견학하는 등 양국 상호 정보교류를 시작하는데 이어서 오는 '94. 9. 4~9. 11(8일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공무원(산업보건관계자) 6명이 내한하여 한국의 산업보건 현황에 관한 연수 및 학술교류를 갖을 예정이다.

이번에 내한하는 중국관계자로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위생부의 위생감독사 노동위생처 부처장이자 산업보건담당 부책임자인 Dr. Su Zhi를 비롯하여 Zang Xiufen(하얼빈시 노동위생직업병방치원 원장), Feng Ai Lan(하얼빈시 위생국 부국장), Jin Zhong Huan(하얼빈시 조선인민의원 부원장), Chen Wei(상해시 위생국 위생방역처 처장), Kou Qing Rui(심양시 노동위생직업병연구소 부소장) 등이며, 이들 방문단 일행은 당협회와 산업보건센터 및 산업보건연구소를 견학한후 가톨릭산업의학센터,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공단 및 의료보험연합회 등을 방문하여 한국의 산업보건제도 및 발전된 한국의 의료보험체제 등에 대한 설명회를 통하여 각종 정보를 교환하게 되며, 포항제철의 보건관리실태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 중국산업보건관계자 일행은 금번 방한 일정동안 가톨릭대학교와 인체대학교에서 각기 2회의 강연회도 갖을 예정이다. ♣